사막과 같은 인생 지혜롭게 헤쳐가기

사막을 건너는 여섯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 지음 | 고상숙 옮김
김영사 펴냄 | 9천9백원

인생은 산보다 사막을 더 닮았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이다. 산은 정상이라는 목표가 있고, 나무 그늘에서 쉴 수도, 계곡의 물을 마실 수도 있다. 하지만 사막에는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적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49)는 수차례에 걸친 전직과 이혼, 자녀양육 등의 인생 역정을 거치며 삶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기존 관념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그의 방황은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딘지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20대때 경험했던 사하라 사막 여행을 재해석하며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사막을 건너는 것과 더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사막을 건널 때에는 산을 오를 때와는 다른 계획과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인생이라는 변화무쌍한 사막을 건너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 왔다. 그것을 한데 묶은 것이 바로 <사막을 건너는 여섯가지 방법>이다.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며 신기루를 좇기도 한다. 그리고 때론 절망 속을 헤매기도 한다. 마치 사막을 여행할 때처럼 말이다.

지은이는 사막여행 체험과 컨설턴트로서 수많은 상담 및 적용 사례를 종합해 고안한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씨실과 날실을 엮듯 절묘하게 결합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사막을 슬기롭게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지은이는 사막에서 보이는 목표물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는 모래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조언한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 수 있다면,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지도가 없는 곳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고자 하는 방향만 올바르다면 목표가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여정 자체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은이는 1977년 스물을 갓 넘은 나이에 프랑스에서 무작정 '남쪽'을 향해 떠났다. 프랑스 인 친구 두 명과 차를 얻어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40여 일의 고된 여정은 그에게 삶의 진정한 모습과 그것을 감내하는 법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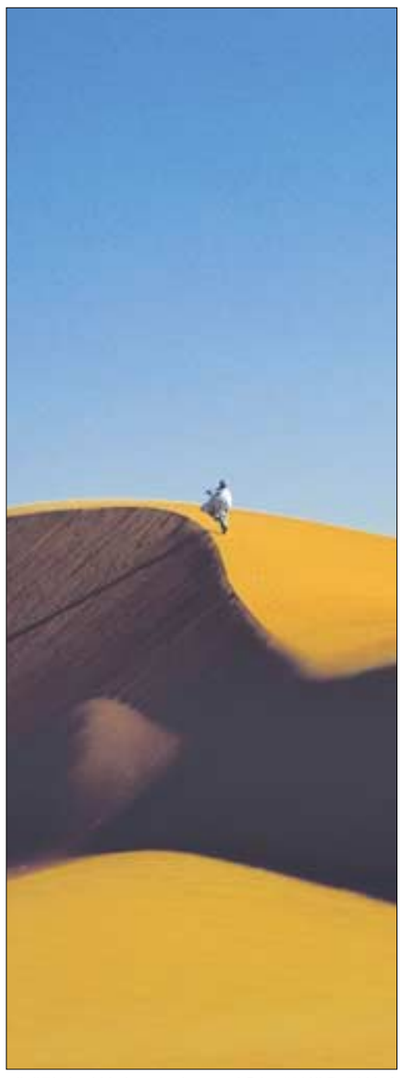
지은이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시간이 날 거라고 생각하며 눈 앞에 다가오는 오아시스를 지나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끝난 뒤에도 사막은 한없이 계속된다. 그래서 지은이는 여가 시간과 주말, 사교의 시간을 빼앗는 핸드폰과 이메일로부터 해방되라고 조언한다. 오아시스에서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 사막을 건너는 일에만 몰입하느라 소홀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막에서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는 것도 지은이가 제시하는 여섯 가지 방법중의 하나다. 우리는 흔히 자동차 바퀴가 모래에 빠지면 악셀레더를 더 밟아 빠져 나오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럴수록 바퀴는 헛돌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막 한가운데서 차를 들어 올릴 수도 없다. 이럴때 바퀴의 바람을 빼면 의외로 쉽게 모래밭을 빠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벽에 부딪히면 팽팽한 바퀴에서 바람을 빼야 한다. 자존심을 버린 채 사과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머리를 숙이고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민망하게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할 때도 있다. 지은이는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지은이는 "인생의 사막에서는 때때로 다른 차에 깃발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모든 일을 혼자 하려다 결국 구조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한다. 또 "안전하고 따뜻한 캠프에서 나와 사막의 깜깜한 어둠 속으로 나아가라 .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을 때, 새 직업에 적응하고 비로소 휴가를 가게 되었을 때 등 경계선을 넘어서면 다시 즐겁고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고 조언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세계적인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는 "인생은 정상이나 목표물이 없는 사막을 닮았다"고 말한다.

전문가 서평

기독교와 불교의 동질성
하세가와 요조 지음 | 이동형 옮김 | 붓다의 마을 펴냄 | 1만3천원

서울 혜화동 로타리 위편 어느 큰 교회 벽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이야기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앞 구절이다.

나는 기독교의 '영생'이 불교의 '니르바나'와 동의어인지는 확실히 모른다. 다만 이 구절에 나오는 '나'를 바로 우리 자신, 즉 '나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고 보았을 때 해석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깨달음의 인자(因子)를 가지고 있다(一切衆生 皆有佛性)'는 불교의 중심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계는 '빅뱅(big bang)' 이론과 '진화론'을 일반적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서양 학문에서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생명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것 같다. 생명은 빅뱅 이후 지구가 생겨나 '원시 바다의 생명 재료 물질에서 단백질과 핵산이 만들어지고 단백질과 핵산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

불교와 기독교 뭐가 닮았나

는 대사 기능이나 자손을 남기는 자기복제의 기능을 가지도록 독자적으로 진화해 왔던 것'으로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인식기능'이 어떻게 개입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명쾌한 답변이 없다. 단지 중국 역학에서는 '음양이 합실하여 운동이 일어나면 정신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고,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Roger Penrose)는 '정신을 어떤 물리적 구조의 한 특징'으로 보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차에 최근 번역된 일본 하세가와 요조(長谷川洋三)가 쓴 <기독교와 불교의 동질성>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해준다. 그는 기원전 아쇼카(Asoka)왕이 중동아시아에 불교의 전법사를 파견해 불교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쿰란(Qumran)의 공동체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불교의 삼신(三神)'과의 유사성을 조목조목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그는 요한복음 12장 44~46절, 49절 등을 내세워 예수가 불교적 무(無)를 실천했던 인상을 심어주면서 <복음서>와 <법화경>을 논리적으로 비교하여 하느님을 '우주생명의 근본적 작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주의 본질로서 그 본질 작용의 주체로 제자리를 찾자는 것일 터이다.

여기에 물리학적 설명을 가미하면, 우주의 거시세계로부터 양자역학적 미시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본질은 실체가 없는 그것이지만, 그 실체 없는 작용이 우리들 자신이기도 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구절의 '나'라는 1인칭대명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래야만 기독교와 불교의 동질성에 부합될 뿐 아니라 하느님이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닌 '우주생명의 근본 작용'으로서 산 사람들의 하느님이 될 때, 기독교와 불교의 동질성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지견 (작가)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청운 스님 약력
대한천문풍수명리성명협회 대구지부장
평화불교대학 중앙이사
대한불교 법사단 자비 봉사회 사무총장
티베트 승황으로 불교대상수료
대한불교조계종 광혜정사 주지
한국불교태고종 보경사 주지
장애인 재활 모임체 초심의 집 복지원장
現 대한불교曹溪조계종 만복사 주지

진품액자 + 열쇠고리 + 휴대폰줄 + 달마카드 + 탁상액자
9개(1세트) 가격 98,000원 ※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적극 권해드리고 싶으신 분..
• 삼재가 드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사업 하시는 분 • 이사 가시는 분
•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 집안의 만사형통을 기원하시는분

복돼지액자 달마도액자
소재 : 아크릴액자+pp금장

앞면 : 달마도 뒷면 : 만사형통부 건강부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75mm × 50mm
※ 사찰이름 새겨드립니다

소원성취 재수대길
켓츠아이 핸드폰고리
소재 : 켓츠아이+순금도금

재수대길 소원성취
Fe니켈도금+순금도금

진품달마도 액자 규격 : 44cm × 5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옻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 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옻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조청 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 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금용사
054-372-5721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옻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생활상담,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지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상담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 교육학박사, 상담심리 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과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mindcoach@naver.com